

# 언간에 나타난 관용적 표현 양상\*

조용림\*\*·백낙천\*\*\*

- 차례 -

1. 머리말
2. 관용적 특성
  - 2.1. 반복성
  - 2.2. 생략성
  - 2.3. 상투성
3. 맺음말

## [국문 초록]

본고는 조선시대 한글 간찰(이하 언간)을 대상으로 관용적 표현의 양상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언간에는 나름의 일정한 규칙을 갖추고 있으며, 이른바 관용적 표현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규칙과 관용적 표현은 언간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습화되고 보편화되었다. 언간 사용의 확대는 19-20세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제1저자, 목원대학교 교양교육부 조교수, coreamal@mokwon.ac.kr

\*\*\* 교신저자, 배재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bnc66@pcu.ac.kr

기에 이르러 방각본(坊刻本) 형태를 띤 이른바 ‘언간독(諺簡牘)’의 간행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책명의 ‘언간독’이 유통되어 언간 형식의 규범화와 격식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용적 표현은 언간이 구어를 반영하고 편지가 갖는 형식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부분이다. 특히, 언간에 나타나는 반복성, 생략성, 상투성들이 언간의 관용적 투식을 보여주는 주요한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이들을 유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언간의 형식적 특징의 일면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는 본고에서 논의한 언간의 관용적 투식 외에도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을 방식을 이용하여 언간에 자주 드러나는 용례에 대하여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언간, 정형화, 관용적 표현, 반복성, 생략성, 상투성

## 1. 머리말

본고는 조선시대 한글 간찰(이하 언간)을 대상으로 관용적 표현의 양상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언간에는 정형화된 형식적 규약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일정한 규칙을 갖추고 있으며, 하나의 형태로 굳어져 통용되는 이른바 관용적 표현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언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규칙과 관용적 표현은 언간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습화되고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언간 사용의 저변 확대는 19-20세기에 이르러 ‘증보언간독’, ‘징보언간독’ 등 방각본(坊刻本) 형태를 띤 이른바 ‘언간독(諺簡牘)’들의 간행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종이의 발달, 인쇄술의 발달, 한글의 보급이 영향을 미쳐 다양한 책명의 ‘언간독’

이 유통되어 언간 형식의 규범화와 격식화가 이루어졌다. 가령, 언간에는 구어적 표현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편지라는 의례적 특성상 반복, 생략, 상투적 표현 양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본고는 언간<sup>1)</sup>에 나타나는 반복, 생략, 상투적 표현 양상들이 언간의 관용적 투식을 보여주는 주요한 특성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들을 유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언간의 형식적 특징의 일면을 제시하고자 한다.<sup>2)</sup>

## 2. 관용적 특성

### 2.1. 반복성

언간에는 같은 표기의 반복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들 대부분은 재점

1) 본고의 언간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창원황씨 언간』, 『순흥안씨 언간』,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2, 태학사, 2005.(이하 <창원>, <순흥>)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신창맹씨 언간』,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2, 태학사, 2005, 139-308면.(이하 <신창>)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전주이씨 덕천군파 종택 한글 간찰』(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7, 태학사, 2009.(이하 <전주>)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광산김씨 가문 한글 간찰』(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9, 태학사, 2009.(이하 <광산>)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의성김씨 언간>, 『의성김씨 천전파·초계정씨 한글 간찰』(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0, 태학사, 2009, 55-380면.(이하 의성>)

2) 물론 언간에 나타나는 형식적 표현에는 보입자, 삭제자, 대두법, 격간법, 이행법, 전환법 등이 있다. 언간은 띄어쓰기 없이 필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미 적어 놓은 내용에 추가로 글자나 다른 말을 끼워 넣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보입자는 끼워 넣을 자리에 권점을 찍거나 자리의 바로 위나 오른쪽에 작은 글자로 필요한 글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삭제자는 불필요한 내용이거나 오자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까맣게 칠하거나 한두 줄 선을 긋는 것이다. 또한, 언간에는 높임의 인물이나 그 인물의 행위를 높여서 표현하는 격식 표현이 있다. 대두법은 편지 원문에서 중간에 행을 바꾸고 다음 행의 첫 글자를 다른 행보다 올려 적는 것을 말한다. 한두 자 정도를 여백으로 비워 관련 인물을 높이는 격간법이 있는데, 그 기능이 존대 표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두법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행법은 언간에서 여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행을 바꾼 경우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에 높임의 대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행법도 존대 표현을 위한 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환법은 발신자, 발신일, 서명 등을 적을 때 본문이 끝난 뒤 행을 바꾸거나 글자를 두서너 자 정도를 비우는 것을 이르는데, 이때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하 관계를 고려하여 발신자의 이름을 작은 글자로 적기도 한다. 이럴 경우 전환법은 겸양 표현의 기능도 함께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라는 표지를 통해 드러난다.<sup>3)</sup> 재점을 통한 반복 표현은 동일자의 반복으로서 한 음절 또는 한 단어를 반복 단위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간명해 보이는 이러한 반복 표현을 언간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면 반복 단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불규칙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반복 표현이 강조의 효과를 위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반복된 어형을 간략히 표기하여 쉽게 파악되는 규칙적인 반복형과 반복된 어형을 유추할 수 없고 문맥을 통해서 파악되는 불규칙적인 반복형도 있다.<sup>4)</sup>

- (1) ㄱ. **복모구** " 로소이ㄷ <순흥 358>(여동생→오빠, 안부<sup>5)</sup>, 하위자→상위자)  
 ㄴ. **일후 니** " 뉘압고<순흥 355>(숙모→조카며느리, 상위자→하위자)  
 ㄷ. **근** " 굼인다<순흥 280>(시어머니→며느리, 하위자→상위자)  
 ㄹ. **보기 듯기 다 점** " 전만 못하니<창원 253>(시아버지→자부/손부, 상위자→하위자)  
 ㅁ. **복형 만** " 니외ㄷ마은<순흥 358>(여동생→오빠, 하위자→상위자)

3) 재점 표지의 유래는 필사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한문 간찰에서 시작되어 한글의 보급과 확산으로 언간으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문 간찰에서 보이는 재점은 주로 감정 관련 한자 어근에 주로 쓰였고 이러한 관습이 언간의 재점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재점에 대한 논의는 이복규(1996), 조항범(1998), 이종덕(2004, 2005), 백낙천(2006)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초기에는 재점의 개념이 혼재하였으나 백낙천(2006)에 이르러 재점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

4) 이와 관련하여 백낙천(2006: 168-169)에서는 반복 단위의 크기로 보아 어근이나 단어 내 반복의 경우에 사용된 재점 '단어 경계 내 재점', 단어 경계를 넘어서까지 재점이 사용되는 '단어 경계 외 재점'으로 나누고 있으며, 반복된 어형의 재점 표지가 보여주는 양상을 '경제성의 효과'와 '강조의 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5) 언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안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핵심 내용만 적기로 한다.

(1)의 예들은 언간에서 1음절 반복 표현이 나타난 용례들로서 반복 어형을 재점으로 표기하여 예측이 가능하다. 즉, (1ㄱ)은 명사 '복모구구', (1ㄴ-ㄷ)은 부사 '니니', '근근', '점점', (1ㄹ)은 '만만하다'의 어근 '만만'을 반복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점이 사용되었다.

- (2) ㄱ. **심여** " 나 오남미 공심 " <순흥 275>(여동생→오빠, 감정, 하위자→상위자)  
 ㄴ. **마음 좁기듯 그러** " 세월 이만하니<순흥 280>(시어머니→며느리, 하위자→상위자)  
 ㄷ. **안문 디쇼 각각** " 고루 현발호은니<순흥 358>(여동생→오빠, 하위자→상위자)  
 ㄹ. **통박** " 한말도<순흥 275>(여동생→오빠, 하위자→상위자)  
 ㅁ. **면** " 밧고 아히들 **쵸화** " 하니<순흥 280>(시어머니→며느리, 하위자→상위자)  
 ㅂ. **스** " 의 **무안** " 호오이<창원 504>(안사돈 사이<sup>6)</sup>)  
 ㅅ. **만스 귀춘** " 근 " 굼인다<순흥 280>(시어머니→며느리, 하위자→상위자)  
 ㅇ. **불상** " 하니 흑 " 앓갑고 절통분호읍<창원 543>(동서→손위 동서, 요청, 하위자→상위자)

(2)는 2음절 반복 표현의 용례이다. 이 경우 재점은 1회 사용으로 선행하는 2음절을 반복하고 있다. (2ㄱ)은 명사 '심여', (2ㄴ-ㄷ)은 부사로 사용된 '그러', '각각'을, (2ㄹ-ㅁ)은 동사 어근의 '통박', '쵸화'가 반복 표현되

6) 신랑 안사돈과 신부 안사돈의 관계는 상하위를 가릴 수 없으며, 서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언간의 내용도 자신들의 자녀를 예쁘게 살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였으며, (2b-0)은 형용사의 어근 ‘무안’, ‘귀촌’, ‘불상’이 반복 표현된 용례이다.

- (3) 가. 천 만 ” 몽미빳<창원 565>(이모→조카, 감정, 하위자→상위자)  
 나. 순화마 ” 진갑의도 상 아니 나왔습<광산 71>(미상)  
 다. 복모구 ” 이웁나이다<광산 34>(미상, 하위자→상위자)  
 라. 두루 평안하옵신지 복모구 ” 이니다<순흥 356>(안사돈끼리)

(3가)은 ‘천만 몽미빳’ 또는 ‘천만 ” 몽미빳’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이하게 ‘천’과 ‘만’이 각각 어근 분리되어 반복 표현된 것으로 결국 ‘천천만만’의 어형을 형성한 경우이다. 한편 (3나-르)은 명사 내 구성요소의 동음에서 오는 반복형이다. 또한 ‘ㅎ다’ 생략형으로 ‘답답’만이 재점 표지된 것으로 주로 후행어로 ‘향염, 절박, 념여, 절민, 아쳐롭-, 그립스온, 존잉ㅎ-’ 등이 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4) 가. 숨연전 가려 ” 혼 거시 <순흥 275>(여동생→오빠, 감정, 하위자→상위자)  
 나. 부디 ” 괴운 안녕ㅎ옵시고 <광산 53>(사위→장모, 하위자→상위자)  
 다. 어셔 ” 기춘되와 오시기만 <광산 61>(동생→형, 감정, 하위자→상위자)  
 라. 괴세ㅎ오신이 ” 런 놀나온 일리며 <창원 565>(이모→조카, 감정, 하위자→상위자)  
 마. 금석 편 ” 지논 <광산 67>(아내→남편, 요청, 부부관계)

나. 그러ㅎ온지 ” 금도 신기 쫓긱지 못ㅎ여 <광산 176>(조카→외삼촌, 하위자→상위자)

(4가)은 ‘ㅎ다’가 생략된 단어의 어근이 반복되었으며, (4나, 다)은 ‘부디’, ‘어셔’ 등이 반복된 것이다. (4르-마)의 반복 표현은 다른 용례와 달리 어근이나 품사의 개념을 넘어 단어 경계를 벗어나 재점이 적용되고 있는 특이한 경우이다.<sup>7)</sup>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반복 표현의 표지로 재점을 살펴보았으며, 그 유형으로 1음절 반복, 2음절 반복, 어근 반복 재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드물게 단어 경계를 넘어 동일 음절을 재점으로 표현한 언간도 볼 수 있었다.<sup>8)</sup> 이와 같이 언간의 반복 표현의 표지인 재점과 관련하여 백낙천(2006: 176-177)에서는 ‘경제성의 효과’와 ‘강조의 효과’로 해석한 바 있는데, ①발신자가 여성일 경우, ②구구한 감정과 소소한 일상일 경우, ③수신자가 발신자보다 상위자일 경우에 반복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제시하였으며,<sup>9)</sup> 본고에서도 반복 표현의 재점은 ‘경제성의 효과’가 필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 2.2. 생략성

언간 자료에 나타나는 생략 표현은 넓게 보아 필사자의 문법 의식 결여로 볼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쓰기 시간 및 상황 등으로 인해 생략 표

7) 언간에 사용되는 반복 표현은 1음절이나 2음절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필사자의 필사 의식과 의미 단위 관계와 발신자를 고려한 필사 환경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언급은 백낙천(2006: 175-177) 참조.

8) 비록 언간의 수가 많지 않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언간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법임을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을 방식을 이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9) 백낙천(2006: 177)에서는 반복 표현 양상을 발신자와 수신자의 사회적 위계와 관련지은 바 있다.

기가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언간에서는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생략의 유형에는 한 단어 내에서의 생략, 복합어를 이룰 때의 생략, 활용할 때의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에서 생략 표현이 나타난다.

언간 특유의 생략에서 ‘ㅎ읍’체를 볼 수 있다. ‘ㅎ읍’체는 ‘-습-’의 후대형 ‘-읍-’ 뒤에 종결어미가 생략된 것으로, 생략된 종결어미의 문장 종결 형식에 따라 문장종결법이 결정된다. 또한 ‘ㅎ읍’체는 대체로 ‘ㅎ쇼셔’체와 ‘ㅎ쇼’체의 중간 등급 정도로 볼 수 있다.

(5) ㄱ. 누의님 전상셔 전연팔월의 흘쳐 온 후 다시 전 ” 소식도 타국 갓스온니 그리온 마음 **피초일반이읍** 히 밧귀여 일망이 되니 시술 안녕하시고 디되 일령하시고 양아 **측실ㅎ읍** 세전 형님 서울셔 부친 편지 본즉 황달노 말 못 된 노라 **ㅎ여습기**<광산 136>(남동생→누나)

ㄴ. 추랑의 거나리오셔 괴운 평안ㅎ오신 소식은 좋 ” 듯스오나 비인셔 스로 곳 즈로 반기지 못ㅎ오니 **첩 ” ㅎ읍기 피초일반이읍** 밧사돈계셔 일전 **힝초ㅎ셔시나** 무춘 대접무 ” 슈통ㅎ오니 **첩 ” 무안** 가이 **업습던이다** 회환 후 태평ㅎ오시고 셔방님겨셔도 평안ㅎ시읍고 **측 ” 아기내덜측건들 ㅎ읍 두루 향희 간절ㅎ오이다**<창원 499>(신부안사돈→신랑안사돈)

ㄷ. 야간 평안이 쥬무신 문안 들좁고 **든 ” ㅎ오이다** 괴별ㅎ신 거손 보션은 **빨라 기우랴고 ㅎ던 것 보니읍** 빅미는 여도 업스와 명일 **앗침 ㅎ랴고 ㅎ것스오셔 되보니읍** 이시면 **말습ㅎ신 디로 보니오고 연말 못ㅎ오니 첵 ” ㄱ이 업습누이다** 여괴 어린 것 **남미누 감괴로 디단ㅎ와 아모 경황 업시 지니읍누이다**<창원 502>(미상, 자녀→부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

ㄹ. **나오리 전 봉장** **솜갓치 단녀가오신 일 첵 ”** **결련ㅎ오며** **가신 후** **늘포되온디** **괴운 평안ㅎ오시읍** **예는 디되분 안** **녕들 ㅎ오시니** **복힝이오나** **측금이 쫄리** **스니 역질** **시죽 ㅎ던** **게 단불의** **날녀스오니** **불상 ” ㅎ니 ㅎ ”** **앗갑고 절** **통분ㅎ읍** **동복은** **흘슈 업습** **그것스로** **정신** **업시지니노라** **웃슬** **즉시 못ㅎ여** **보니와** **쫄ㅎ읍** **웃시** **마음의** **맛기나** **흘** **논지** **모르계습** **첵** **익은** **눈은** **어둡고** **간신니** **ㅎ여스오나** **도쳐 못ㅎ읍** **이읍은** **즐ㅎ계습** **오죽** **기다리실** **일** **민망ㅎ** **오며** **창의** **시급ㅎ오니** **엇더케 ㅎ시읍** **모시** **측포로 ㅎ여** **입으시면** **조케습누이다**<창원 543>(손아래 동서→손위 동서)

ㄴ. 오라바 **보시읍** **히도** **노은** **붓절** **든이** **정신도** **히황ㅎ고** **싱** **스로** **잇지** **못형님도** **인세** **셔난지** **거연이라** **가이업고** **통** **박 ” 한** **말도** **진즉** **전치** **못 이** **엇지** **동괴** **정일고** **모름이** **안이나** **영위에** **습연** **전** **가려 ” 한** **거시** **늑근** **몸이** **여의** **치** **못** **미물하엿나이다**<순흥 275>(나이든 여동생→오빠)

(5ㄱ)의 ‘피초일반이읍, 측실ㅎ읍’의 ‘-읍’은 언간에서 상투적으로 쓰이며, 종결어미 ‘-니다’ 정도가 생략된 표기이다. (5ㄴ)의 ‘피초일반이읍’은 전체적으로 ‘ㅎ쇼셔’가 쓰인 것으로 보아 뒤에 ‘-니이다’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ㄷ)의 ‘되보니읍’은 ‘되보냅니다’이며, 언간에서 상대높임법의 등급상 ‘-니이다’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5ㄹ)의 ‘절통분ㅎ읍’은 ‘ㅎ읍’뒤에는 ‘누이다’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5ㄴ)의 ‘보시읍’은 ‘보십시오’ 정도로, 명령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10)</sup>

10) 이른바 ‘ㅎ읍’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습-’의 후대형 ‘-읍-’ 뒤에 종결어미가 생략된 것이다. 생략된 종결어미의 문장 종결 형식에 따라 문장종결법이 결정된다. 여기서는 ‘보십시오’ 정도로 보아 명령문으로 파악된다. ‘ㅎ읍’체의 상대높임법 등급은 대체로 ‘ㅎ쇼

- ㄴ. 영감주 전 상셔 문안 알옵 먼저 하문 ㅎ옵시이 황공 젓젓  
사온 말삼 못니 **알옵니다** 향차 ㅎ옵신 후 문안 열어 번 듯  
사오이 체후 안영 ㅎ옵심 알라삽던이 쌀이 정월 스무나훗  
날 와삽기 자셔이 듯사오이 세전 나여가와 뵈옵고 께세  
도 일양이 지나옵시고 세전 세후 그체후 연 ㅎ와 일양하  
옵신 말삼 자셔이 듯사오이…하략<창원 515>(강홍열(하  
위자)→황지인(상위자))
- ㄷ. 궁겁던 초 소식 들은이 무고 ㅎ온 듯 든 ” ㅎ옵던이 수  
일시 되온이 시로이 궁금 ㅎ오며 **사돈 니외분겨오셔** 층  
” 거나리시고 괴운 만강 ㅎ오시고 … 중략 … 섭섭이 **알  
오시지 말오시옵** 말월의도 편지 ㅎ셔는디 주야 성치 못  
흔 고로 편지 답증을 못하여 잇찌것 **섭 ” ㅎ오이다**…하략  
<창원 508>(장모→?, 내용상 부인→남편으로 추정)

일반적으로 ‘ㅎ쇼셔’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기 때문에 생략 현상이 덜 이루어지지만, 언간에서는 ‘ㅎ쇼셔’체가 쓰이는 편지에서도 생략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5ㄴ)의 ‘알옵’은 전체적으로 ‘ㅎ쇼셔체’가 쓰이고 있으며, ‘-니다’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ㄷ)의 ‘말오시옵’은 명령문 어미 ‘-쇼셔’가 생략된 형태이며, 사돈간의 일로 보이나 언간 전체적으로는 부인이 남편에게 쓴 언간으로 보인다.

- (6) ㄱ. 상략 … 이 아희는 발셔 가려 ㅎ건마는 길은 멀고 썩 찰  
러 가지 못 ㅎ다가 이제야 간신이 떠능가오느 엇지 갈지  
염여 노이지 **아니 ㅎ오이다** 봄이 되야씨니 머능리 신히을

이월노 ㅎ면 조흘 듯 ㅎ오나 삼월 담스 후 길복으로 오난  
일 더욱 조흘 듯 ㅎ오니 게셔 덕일 ㅎ여 도흘 디로 **ㅎ시옵  
쇼셔 층 ”** 잠 적스오며 이옵 니 ” **괴력만지 ㅎ옵쇼셔** 계  
축원월 초스일 사돈<광산 57>(신랑 안사돈→신부 안사  
돈)

- ㄴ. 상략 … 내 병은 통세는 나오디 바히 음식을 못 머그니  
경대드려 무려 달라 ㅎ여 가감냥격산 세 복 머그디 죠곰  
도 썸과 음식 먹기 낫디 아니코 수삼일간은 목 머긔기 더  
심 ㅎ여 어지 언양드려 최 거스의 무려 달라 ㅎ였더니 아  
직 괴척 엇다 손도 곡각기디 못게 붓고 삼만은 염병을 ㅎ  
여 오늘 토열 ㅎ되 어른 종이 업서 출막 못 ㅎ여 하 뒤심 ”  
ㅎ여 **잠** 덕으며 네 저고리 ㅎ나 네 아바님 ㅎ것 가니 진  
겉이 맛더 즈시 티보 ㅎ여 허고 나디 아니케 ㅎ라 ㅎ고 브  
디 ” 나든디디 말고 글 비 ㅎ고 유 비장이 권당이니 흘디  
ㅎ여 버릇업시 슈욕 말고 후디 ㅎ여 드리고 잘 잇고 왕니  
의 **유무 ㅎ여라** 풀 썩러 겨요 덕노라며<신창15-16>(어머  
니→아들 맹숙주)

- ㄷ. 季從祖妣 淑人 星山 李氏 手蹟 夫人 辛酉生 丁亥沒 享年 八十七  
초소한이 평안한 일 알고 즐거오나 우환이 도  
로 못 ㅎ여 또 피접났다 ㅎ니 죽히 민망 ” ㅎ랴 녀녀 ㄱ이  
” 엇다 # ㅎ으로 심난흠 닛디 못 ㅎ다 덤넙모 엇디 ㅎ여  
올고 녀녀 측냥 업고 혼인은 스린 날적 그 엇디어 주르  
흘디 뒤심난 ” ㅎ다 엄대도 아직 잇기 미뎃더니 불의 가  
니결연 ” 섭기 ㄱ이 ” 엇다 눈 감감 ” 겨유 **잠** 이번은  
다시 ㅎ기 브라노라 녀삼 종조모<신창 19-20>(전문, 종  
조모→손자)

서'체와 'ㅎ쇼'체의 중간 등급 정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황문환(1999). 「근대국어 문헌 자료의 'ㅎ옵'류 종결형에 대하여」, 『배달말』 25집 참조.

(6ㄱ)과 (6ㄴ)은 언간의 구어적 특징을 반영하는 예로서 상투적으로 ‘잠시’에서 ‘시’가 생략된 ‘잠’만 나타나고 있다. 또한 (6ㄷ)처럼 잠시 뒤 ‘이 번은’ 사이에 ‘적는다’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간에서는 ‘잠’이 <광산 57>에서도 나타난다.

(7) ㄱ. 쇼상 기드리를 초 글월 바즈와 이 스이 춘한의 괴운 평  
안호오신 날 못니 든 ” 깃스오며 저적 편지를 붓치온 후  
심녀 오작 호오시져 향념 7이 업습더니 필경 전인호여  
계시오니 친히 보시든 못호시웁고 오작 탓갑스오시며 놀  
느계시오리잇가 … 하략<광산 51>(신부 안사돈→신랑  
안사돈)

ㄴ. 글시 보고 본 듯 탐 ” 반가움 층양 업다 글난지 날포 되  
니 그 스이논 시봉 무양부지호고 스돈덕겨오셔도 엇지  
부지호여 지너지냐 굶 ” 장일 못 고 지낸다 예는 별고  
업시니 다형호나 이인셔논 탈을 몹시 상회 오셔다 호더  
니 이 동안은 쇼식도 모로오니 답 ” 호고 아히는 계가 잇  
스니 작 니려오랴 쏘 도록 이인으로 갖다 줄 잇는지 두로  
굽 ” 층양 업고 올은 너을 다려다가 너의 시루시니 … 하  
략<광산 50>(시아머니→며느리)

ㄷ. 총 ” 이 보고 와서 셉 ” 호던 초 글시 바다 보니 속의 완  
용 다시 본 듯 탐 ” 반갑다 그스이 너의 으루신네겨셔 병  
환이 종시 낫지 못호신가 시부오니 작 초민이 지나랴 외  
오셔 염여 일시도 노이지 아니한다 세시가 지격호여시니  
되시고 과세느 잘 호여라 전축 그치다 경술 납월 염칠일  
식부<광산 58>(시아버지→며느리)

(7ㄱ)의 ‘오작’은 오죽의 의미이며, 생략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언간에서는 ‘작’<광산 50>, ‘작’<광산 58>, ‘죽’<전주 1265> 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 2.3. 상투성

『정보언간독』에서도 나타났듯이, 언간독은 ‘서두, 본문, 결구’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언간에서 상투적 표현<sup>11)</sup>은 특히 편지의 형식성이 두드러지는 서두와 결구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 ㉑ 기체후

(8) ㄱ. 상략 … 화창 일기에 연하와 사장계옵서 **기테후 강녕하  
시와** 숙반지공이 일양강밀하시고 꺾 사돈계서 양 **테후  
만만하시며** … 하략<의성 1241>(사돈→사돈)

ㄴ. 조초 알외오며 외구#겨옵서 환탁호오신 하셔를 쯔어 못  
뵈와 다시 알외오며 환탁호오신 후 **기테 만강호옵신지**  
복모구구호오며 자인겨 상셔 못 알오니 죄송 ” 호옵느이  
다<광산 64>(전문, 사위→장인)

ㄷ. 질부 바다 보아라 셔 ” 기다리든 차에 질아 닷치미 천금  
존찰 바다 보니 질거운 마음 층양업다 이러한 초춘에 사  
돈 양위분 **기체후 일향 만안하옵시며** 각 덕 제절이 다 두  
루 티평하신지 원렘불이라 속모는 아즉 무탈하니 흥일다  
일후 느 ” 뵈옵고 알영하기를 바리노라<순흥 356>(전문,  
숙모→조카 며느리)

11) 배영환(2017: 41-43)은 「언간 규식서의 투식적 표현과 한글 편지에의 실현 양상 연구」에서 ‘투식적’ 용어에 의문을 나타내며, ‘반복적’이고, ‘두 단어 이상이 긴밀히 연결되어 반복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정보언간독』의 내용에서 언간의 ‘투식적 표현’을 연구한 바 있다.

ㄹ. 상략 … **기테후 안영**ㅎ읍시고 아쥬 제절이 일안ㅎ오시  
이잇가 복모 부리옵지 못하오며 종손언 무양ㅎ읍고 친절  
이 조평ㅎ이니 복항이로소이다 작년 지년 일은엇지 일  
필노 다 적싸오리가 총〃 이만 ㄹ리오며 니〃 **기후 만강**  
**ㅎ읍시기** 브라옵는이다<전주 6-7>(이은필(손자)→할머  
니)

‘기체후’는 ‘몸과 마음의 형편’이라는 뜻으로, 웃어른께 올리는 편지에  
서 문안할 때 쓰는 말이다. 서두와 결구에 관계없이 ‘기테후’, ‘기체’, ‘기후’  
등의 표기 용례가 보인다. ‘기체후’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언  
간에서는 ‘기테후’와 함께 ‘강녕, (일향) 만강(만왕), 안영’ 등이 이어서 나  
타나고 있다.

#### ¶ 복모구구

(9) ㄱ. 황공 복지 문안하오며 복미심 시 초설 디감님 기체후 일  
향 만안하옵심 **복모 부리옵지 못하오며** 쇼인은 특별이  
하홀지턱을 입스와 안식이고 보하오이 복항 하달이오며  
취복비니 지히 회편 하 층양 종지속은 이송 복슈하였스  
오며 디감님 다시 등단하시와 속이 도영하옵심 천만 복  
축하오며 기체후 니〃 안영하옵심 고과하옵니다<광산  
33>(전문, 미상)

ㄴ. 나을임 기체후일향만안하오며 쇼인은 **복모구멍이** 막비  
ㅎ렘지턱이삽오며 거거월 흥츠은 편안환폐ㅎ읍신지 알  
고져 ㅎ오며 … 하략<의성 914>(산지기→땅주인)

간에서 자주 보이는 상투적 표현이다. 이때의 ‘복(伏)’은 발신자의 공손의  
감정을 나타낸다. 또한 ‘구구(區區)’는 ‘잘다’의 뜻으로 자신을 낮추어 이  
르는 표현이다. 본 언간에서는 (9ㄱ)처럼 ‘복모 부리옵지 못하오며’로 나  
타나며, <광산 39>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9ㄴ)처럼 산지기가 주인  
에게 보낸 언간으로 엮드려 ‘사모하며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하렴해주는  
은혜 아님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광산 36>에서는 ‘복모구〃’가 쓰  
이기도 하였다.

#### ¶ 복미심

(10) ㄱ. **외숙 주 전 상셔** 풍파 쯤 비별도 경황읍시 썬나셔 오리  
문안 듯잡지 못ㅎ오니 하정의 복창ㅎ오나 이역 운수라  
ㅎㅎ오릿가 **복미심** 춘식이 이모와 숙쥬 니외분 기후도  
안영ㅎ시고 종아덜도 충실ㅎ고 장스리 덕 제절도 만안  
ㅎ시고 누의 사돈덕도 평안ㅎ신지 알고져 답답ㅎ오나  
이놈은 천싱의 무신 죄 쯤ㅎ여 이션영 별쳐조ㅎ고 직지  
의 부운 갖치 썬다임 이갓튼 인싱도 인명도 인싱이라 ㅎ  
오잇가 … 하략<광산 153>(조카→외숙)

ㄴ. **아반님 전 상살니** 문안 알외압고 슈일간 문후 듯잡지  
못 불님ㅎ성지〃 올 츠 ㅎ셔 밧츠와 뵈압스오니 유경ㅎ  
오신 우리 아반님 역〃 ㅎ오신 ㅎ교을 일석의 밧츰난 닷  
그러나 아반님게셔 실섭 쯤 계신다 ㅎ섯시이 외로 듯  
줍기 죄송〃〃 ㅎ여니다 **복미심** 일리에 아반님 기테후  
일향 만강ㅎ압시기 엮디려 복축ㅎ압고 … 하략<전주  
169>(며느리→시아버지)

‘복모(伏慕)’는 ‘엮드려 받드는 공손하고 지극한 마음’이라는 의미로 언

‘복미심’은 상대방의 편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편지를 쓸 때 사용하

는 표현으로써 오랜만에 편지를 쓸 때 사용한다. ‘복’은 발신자의 모든 감정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에 마치 접두사처럼 붙어 공손의 뜻을 나타내는 투식어이다. 또한 ‘伏未審 … 쯤’의 구조를 통하여 상대의 안부를 물을 때에 쓰는 관용어이다. 이 외에도 <광산 34>, <광산 154> 등 서두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 ¶ 복힝

(11) ㄱ. 문안 알외옵고 납한이 귀후 안녕힝옵신지 문안 오리 못  
دت즈오니 복모 브리옵디 못 흘 올 츠 하셔 받즈와 뵈오  
니 든 ” 못니 알외옵고 제절 못 족지 안스오심 복힝이오  
며 전후 오리 오니 제절 엇더힝옵시고 어마님겨오셔도  
안녕힝시고 용달도 잘 잇습느니잇가 복모 측냥 업습느  
이다<광산 66>(전문, 손자며느리→시할머니)

ㄴ. 사돈계오서 도위분 현시 별첨 안이 계시며 … 중략 …  
이곳 사제 현탈은 업사오나 의문인계서도 허다 소관 여  
의치 못하신 관려 피 절박삽고 대택에도 동서 도위분 별  
첨 업사시니 수소동기에 복행사오며 슬하 내외 여러 층  
반 무양충실 공영 ” ” 여아난 만사가 저의 뜻과 갖지 못  
내렴으로 애써 형용 혈숙 중난 ” ” 서군을 뵈올사록 은  
근 관후범절이 진짓 명가출신니라<의성 1245>(신부 어  
머니→신랑 어머니)

ㄷ. 달포 문안 모오와 힝회 간절힝오며 … 중략 … 척종덜  
은 성히 잇스오니 복힝스오나 스월의 맛동심덕 복저을  
만느오니 지극 통박 불상힝은 밧노친 별절이 더 첨손힝  
오니 민박힝옵고 질아 형제 경상이 촉혹 불상 공녕힝와  
일시도 잇지 못힝오며 쥬제힐 스남니 업스오니 집 일니

너무 답답스와이다<창원 523>(조카→숙모)

‘복힝’은 주로 편지에서 ‘자신의 다행함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로 쓰이  
며, 언간에서는 ‘복힝이외다’, ‘복행사오며’, ‘복힝스오나’의 형태로 쓰였다.

#### ¶ 불비상후서

(12) ㄱ. ###上爲書 … 중략 … 상약힝은 일은 의슈 구별힝올거  
신니 니 ” 츠 힝량힝옵쇼셔 회동 후 즉지 가와 복비힝옵  
기로 불비상후서<광산 34>(미상)

ㄴ. 상후서 지불 와 빅니 지니에 쇼식이 묘연힝와 복창만 ”  
니옵 집 순 직영의 연힝오셔 정 제절니 만중힝오시고 각  
덕 혼절니 균안덜 힝온잇가 … 하략 <광산 149>(아랫사  
람→윗사람)

‘불비상후서’는 ‘예를 다 갖추지 못하여서 올리는 안부 편지’라는 뜻으  
로, 편지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공손함을 더한 표현으로 한  
문 편지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언간에서는 서두, 결구 관계없이 잘 사용  
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상후서’를 쓰면서 웃어른께 보내는 편지에 예  
를 갖추는 용례가 보인다.

#### ¶ 상술이

(13) ㄱ. 아바님 전 송송리 아바님 글월 밧자옵고 즉시 송  
서치 못하여 하정에 복송 만 ” 이외다 복미심 일  
간에 할만님 기테후 강녕하시며 아바님 양위분  
계옵셔도 안녕하시고 덕니 제절리 궁녕들 하신  
지 하정에 복모구 ” 무임하성지 ” 로소이다 츠

곳 불효식은 하렴하시여 주시는 덕택으로 시부모 뉘시고 한모양이오니 복형이로소이다 … 하략  
<전주 805>(딸→아버지)

ㄴ. 아바님 전 **상술이** 달포 문안 아득호와 쥬소의 복념간절 하옵든 초 하셔 붓조와 비옵스오니 든 ” 못나 알외오며 겸하와 직중 귀후 안녕호오신 일 하정 복희만 ” 이오며 그 후 여러 날 되오니 시로이 향모 간절호오며 일긔 상냥이 되오니 조석 진지 달게 잡슈시고 침숙니 여전호오며 글역 여전 강건하오신가 … 하략<전주 169>(며느리→시아버지)

ㄷ. 문안 알외옵고 모춘에 연하와 기체후 만수무강 하신잇가 아압고 알외오면 알외올 말삼 젓사와 이만 알외옵나이다 이후 내 ” 기체후 만강하심 복축하옵나이다 무신 상월 이일 제종 손부 **상살이**<의성 1960>(전문, 손부→조부모)

ㄹ. 문안 알외옵고 귀후 안녕호옵신 문안 아옵고져 바라오며 알외올 말삼 하감호옵심 젓스와 이만 알외오며 신세 불원호오이 내니 기테후 만안호옵심 바라옵는이다 병신 납월 스므예시날 종달부 **술이**<광산 72>(전문, 미상)

ㅁ. 한아바님 **상소리** 문안 알외옵고 기테후 제절 일향 만안호옵심 문안 아옵고져 바라오며 알외올 말삼 하감호옵심 젓스와 이만 알외오며 내내 기테후 만안호옵심 바라옵는이다 정히 십이월 십구일 손부 **상소리**<광산 189>(전문, 손자며느리→조부)

자가 윗사람인 경우에 편지의 맨 앞에 ‘상술이’로 나타난다. 웃어른, 특히 조부모나 부모에게 드리는 편지의 첫머리나 끝에 쓰는 ‘사뢰어 올린다’는 뜻으로 상투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다. ‘상술이’는 (13ㄱ-ㄴ)에서는 서두에, (13ㄷ-ㄹ)에서는 결말에, (13ㅁ)에서는 서두와 결말에 모두 쓰인 용례이다. ‘상살이’의 표기는 ‘승승리’, ‘상술이’, ‘상소리’, ‘술이’ 등으로 나타나며, 이 외에도 ‘상술이’<전주 191-2>, ‘상살이’<의성 1958>, ‘상술’<의성 1957>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 ¶ 상서

(14) ㄱ. 외고쥬 전 **답상서** 훔쳐 무려와 하정의 결연호옵더니 하셔 붓조와 살피오니 일간의 시중 두 분 귀후 안녕호옵시고 … 중략 … 일간의 다시 가 보오려 호옵는이다 이만 알외옵는이다 무즈 육월 이십칠일 외칭 김종귀 **상서**<광산 129>(사위→장모)

ㄴ. 뉘트吉 告目 황공 복지 무안 듯사오이 복#문 모춘의 서방임주 기체후 안녕호옵시고 디소 제 썩도 안녕호옵시기 복모구 ” 무임호달지라 小人은 노모도 무고하고 … 중략 … 얼줄 말삼 무궁호오나 이만 그치나이다 계모 삼월 이십 이일 소인 오이길 **상서**<광산 36>(오이길(하위자)→상위자)

웃어른에게 글을 올린다는 의미의 ‘상서’는 한문 편지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언간에서도 그 쓰임이 확인된다. (14ㄱ)은 사위가 장모에게 보내는 언간이며, (14ㄴ)에서는 특이한 표현으로 ‘상서’가 ‘-옵’과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광산> 언간에서 집중적으로 ‘상서’가 나타난다. ‘상서’<광산 53>, ‘상서’<광산 61>, ‘상서’<광산 62-1>의 용례가 보이며,

‘상술이’는 한문 편지의 ‘上白, 上白書’와 같은 말로 일반적으로는 수신

‘소’가 덧붙은 ‘소상셔’ <광산 159> 형태도 나타난다. (14口)에서는 상셔의 반대인 ‘웃어른이 주신 글월’의 ‘하셔’가 쓰인 용례도 나타난다.

#### ¶ 소상

(15) ㄱ. **쇼상** 기드리올 츠 글월 밧즈와 이스이 춘한의 괴운 평 안호오신 닐 못니 든 ” 깃스오며 저적 편지를 붓치온 후 심녀 오작호오시져 향념 7이 업습더니 필경 전인하여 계시오니 친히 보시든 못하시웁고 오작 텃갑스오시며 놀노계시오리잇가 … 중략 … 피츄 석녀를 호계스오니 그리호라호읍 맞춤 슈 ” 호와 긴 스연 이만 그치오며 내 ” 티중 괴운 일안호오시고 순산 득남호오시기 브락 읍노이다 계축 이월 초십일 스돈 남 **쇼상**<광산 51>(신부 안사돈→신랑 안사돈)

ㄴ. 아즈마님전 **소상셔** 천만 ” 몽미 밧 디고를 만나옵신 말은 지극 놀납스온 밧 필연을 밧드와 무산 말숨을 알외 오리잇가 비록 춘취 놓조오시고 일시 환우 침똥호오시나 물약성효로 아무조록 회춘 빅세를 암톡호옵시다가 못츄니 화고를 당호옵시니 반호 벽용의 이호 망극호읍 심 … 하략 <광산 159>(조카며느리→숙모)

ㄷ. **답소상** 조문 밧즈와 이답 무비오며 조인은 죄역이 심 중하와 디고를 당호오이 망극지통이 텃지간의 용신지 못할 듯하오나 완명이 무지호와 부지호외며 상가 세월이 텃업스와 질서가 연호와 변호오니 축처의 츄모지통과 유흔이 그음 업스외며 사랑의서 이휘 과도호와 쇠연에 만이 슈척하오시어 이절 민몽이외며 일기 부족하온디 기운 평안하오시고 밧스돈게오셔도 만안호오길 합

니 규난하시다오니 위항이며 이곳은 이척 외히들 무고 호압고 며나리도 무량하오이다 말숨 황미 중 이만 알외 나이다<전주 197-2>(전문, 사돈→사돈)

‘소상’은 상중에 있는 사람에게 삼가 아뢴다는 의미로 이다. 언간에서는 서두와 결구에 모두 사용된 투식어이며, 언간의 특성상 여러 표기로 나타난다. (15ㄱ)에서는 ‘쇼상’으로 표기된 용례가 보이며, 서두와 결구에 모두 나타나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볼 수 있다. (15ㄴ)에서는 ‘소’가 덧붙은 ‘소상셔’ 용례가 보이며, 이러한 용례는 <광산 99> 등 언간 곳곳에 더 나타나기도 한다. (15ㄷ)에서는 ‘소상’에 대한 답장을 보내는 용례도 보인다. 또한 ‘소’와 함께, 문서를 뜻하는 ‘장’을 사용하여 ‘한 용례도 보인다.

ㄹ. 상략 … 이곳은 별고 읍스오니 다항이오며 스연 남스 오노 어득 요요 다 못 적스오니 니 ” 괴운 평안호오심 바라옵노이다 기유 십월 십육일 스돈 라 **소상장**<광산 185>(신부 안사돈→신랑 안사돈)

ㄹ. **답 소상중** 궁거울 츠 오실 소식 드르니 시원호오며 습상을 맞치시고 칠구연 호시니 오죽 망극호시라 호오디 용갑 조당게오서 오죽 호시라 일갓스오며 여기는 디소 7 별고 읍스노 고초 업짜노라 … 하략<광산 83>(미상)

ㅂ. **상장** 그스이 극심흔 장마의 신상 엇더호시고 디되 무고 들 호고 디슈의 디소가 전답 중 슈파나 업습 지나는 곳마다 기벽을 들여 소견이 놀납습 이곳슨 집쳐는 지 삼일만 천안 읍내 와서 외우을 맛나 모우호고 칠원 와서 늑일을 목어 이제 간신 서울 득달호여시니 … 하략<광산

## 81&gt;(남편→아내)

이 외에도 '상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표기가 여러 언간에서 보인다. 또한 특이한 표현도 보이는데, 앞선 '상장'은 상중의 사람에게 예를 갖춘 표현이지만 (15b)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언간에 '상장'이 표현되었다. 이 표현은 '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경의를 나타낸 독특한 표현이 아내에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알외옵고

(16) 가. **문안 알외옵고** 일기 어즈럽스온디 귀운 엇더호오신 문안 아옵고져 브라오며 # # # 들포 문안 모르오니 하정의 섭 " 북념 아므라타 업스와 호옵노이다 아히들도 다 죠히 잇습노이잇가 식골은 역질이 혼타 호오니 녀녀 브리옵디 못호와 호옵노이다 알외올 말슴 감호오심 지번호와 이만 알외오며 내 " 귀후 평안호옵심 브라옵노이다 무인 이월 녀이일 데서 상셔<신창 53-54면>(전문, 미상, 하위자→상위자)

나. **아바님 전 상소리 문안 알외옵고** 경향니 낙 " 호오니 9득호온 북모 간절호오며 문안 아온지 어어간 달피 지니오니 원모 동동 부리옵지 못호오며 연호와 직중의 고티후 강건호옵셔 침식 범절리 여전호와 계게시온니가 호정의 북념 부리옵지 못호온니다 ... 하략<전주 6-10>(며느리→시아버지)

다. **자근아바님** 상소리 문안 알외압고 니려흔 계동에 연호와 자근아바님 **귀체후** 일향 만강호압심 **아압고져 알외오며** 알외올 말슴 호감 젓스와니만 알외압고 니후 니 "

귀체후 안령호압심 복축호압난니다 림술 십이월 십이일 질부 승셔<순흥 363>(전문, 조카며느리→작은아버지)

르. **아바님전** 상살이 문안 알외옵고 회정호옵신 후 날포 되옵스오니 북모 구구 부린 식 업스노이다 차호의 연호와 고티후 만슈강영호옵식니잇가 **아압고져 알외오며** 알외올 말슴 호감호옵심 젓스와 이만 알외외옵나이다 이후 니니 고티후 만강호옵식기 복축복축호옵나이다 호정의 섭섭호와<의성 1958>(전문, 며느리→시아버지)

'알외옵고'는 '말씀드리려 알리다'의 의미로 언간에서는 '알외옵고', '알외오며' 등의 용례가 보인다. '알외옵고(알외오며)'는 상투적 표현으로 언간에 흔히 보이고 있는데, '문안', '아압고져(아압고져)'와 함께 나타난다. (16 가-나)에서는 서두에 '문안'과 결합한 '알외옵고'가 사용되고 있으며, (16 다-르)에서는 '아압고져'와 결합한 '알외오며'가 사용되고 있다. '아압고져(아압고져)'는 '알고자'의 의미로 동사 '알다'의 어간에서 'ㄹ'이 탈락한 '아'에 화자 겸양의 '압'이 결합하고, 의도형 연결어미 '-고져'가 결합한 형태이다.

## ¶ 존후

(17) 가. 상략 ... 셔모도 평안호옵고 소덕의셔도 일안호오시니 잇가 시절은 위롬호옵고 하정의 답 " 호옵고 날이논 닛다 호오니 다시 부모 동심 심면도 못호옵듯 한심 " 호온 말슴 엇지 다 알외오리잇가 식은 양위 **존후** 점 " 못호옵시니 츄모 절박호오나 어린 것들은 무탈호오나 역질은 티치호옵고 두루 송구호오이다 ... 하략<광산

78>(아들→아버지)

ㄴ. 날포 스이 거느리오셔 신상 평안호오신 글월 빛  
조와 탐 ” 반갑습고 빛사돈계오셔도 귀운 평안호  
오시고 며느리 즐 잇노보오이 깃부오며 녀긔 아히  
는 즐 단여오 ” 이 고틱 깃부오노 거긔셔야 덧업  
시 보니시고 죽 셉 ” 호오시리잇가 이곳즌 별고 업  
스오노 존후 갖금 미령호옵시이 황공 츠민호오이  
다 스연 남스오노 슈요 다 못적스오이 이 읍 내내  
신상 평안호오심 밋줍노 신미 구월 십오일사돈 도  
<전주 156>(전문, 사돈→사돈)

ㄷ. 상략<sup>12)</sup> … 가 굶 ” 호오며 존후 제절 강안호옵신 일 깃  
스오며 며나리 병은 종시 한가지라 호오니 녀녀 답 ” 호  
오며 저문 아히 병이 그리 위중으로 지니는 일 답 ” 호오  
며 … 하략<창원 535>(신랑 안사돈→신부 안사돈)

ㄹ. 상략 … 심이난 춘빙 갖치 풀여가고 절현이 징숙되야  
닝낙한 문성도 기 ” 슨 ” 창디기난 손썩아 바라오며 깃  
거운 심스 티산이 유경하니 장황 소회 이만 긔치며 그날  
녀에 삼종씨 덕 존후 뵈시고 한풍원노에 무스 입달한 일  
유관 ” 그후 수월 동안 즈모에 다림업시 성교 정중하시  
고 지극 이홀하시난 일 비록 원외나 역 ” 뵈옵난 듯 구  
고 감스만 ” 이오며<의성 1265>(시어머니→며느리)

‘존후’는 편지에서 ‘남의 건강 상태를 높여 이르는 말’로 지체가 높은 사  
람의 건강 상태를 물을 때 사용되었다. 위의 용례에서는 (17ㄱ)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이며, 나머지 (17ㄴ-ㄷ)의 언간은 사돈끼리의 안부

12) <창원 535>는 전면 없이 후면만 전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편지를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 (17ㄷ)은 시어머니가 며느  
리에게 보내는 언간으로 ‘존후’가 쓰일 수는 없으나 내용상 며느리에게  
다른 이의 안부를 묻는 상황에서 ‘존후’를 사용하고 있다.

#### ¶ 하렴

(18) ㄱ. 生員主 前 황공 복지 문안하옵오며 스이 달포 되여스  
오니 일긔 극한하온디 심원주 문안 안령하옵시고 덕니  
문안 다 안령하옵신 문안 모로와 하정의 복모 부리옵지  
못 하오며 소인 츠복은 하렴하옵신 덕택 입스와 조히  
잇스오니 복행이로소이다 압셔 분부하옵신 흥정은 낮  
” 히 다 하여 상송하오나 소인이 몸소 가###옵고 동심  
공이 오고 체송하오니 하정의 황###나이다 석어 한 동  
과 혜집네 동의은 의슈히 비송하옵논디 혜집은 사지 아  
니하옵고 김 비장 덕여의게서 두 동의을 즈비하여 보니  
로라 하오니 통촉하옵소서 달은 말슴 전츄 고과하옵니  
이다 갑오 십월 십칠 일 소인 차복<광산 39>(전문, 하위  
자→상위자)

ㄴ. 아바님 전 승승리 아바님 글월 빛자옵고 즉시 승서치  
못하여 하정에 복송 만 ” 이외다 복미심 일간에 할만님  
기테후 강녕하시며 아바님 양위분게옵셔도 안녕하시고  
덕니 제절리 궁녕들하신지 하정에 복모구 ” 무임하성  
지 ” 로소이다 츠곳 불효식은 하렴하시여 주시는 덕택  
으로 시부모 뵈시고 한모양이오니 복행이로소이다 …  
하략<전주 805>

ㄷ. 복미심 시신의 셔방임 기체휴 일힐 만안호옵신지 알고  
저 복모구 ” 무임하성지 ” 이오며 소인은 복몽 화홀지덕

하와 무사이 지나오니 하렘지턱이오며 다름 안이오라  
안 전임계옵서 금변의 김희로 니비하섯다 하오니 셔방  
임도 김희로 횡차하시옵는지 알고져 하오며 허다흔 말  
솨 슈일 보옵고 살부올니다 여불비 편고 의명난횡상 기  
축 솨월 니십팔일<광산 154>(전문, 미상)

‘하렘’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염려하여 주거나 그런 염려’를 아랫사  
람이 높여서 이르는 말로 언간에서 자주 보이고 있다. ‘하렘’은 ‘덕택’과  
어울려 쓰인다.

¶ 향염

(19) ㄱ. 음성으로 부친 편지 보고 든 ” 반가오누 그 후 달포 되  
고 과세가지 히이 그립고 션 ” 한 향염 그지업더이 즐  
잇는 글시 쯔 보이 안면 슈족인 듯 깃부누 히마다 외오  
셔 과세을 히이 세황이 업시 지니여다 여기는 연고 업  
시 두 집이셔 과세하고 아히들 탈업시 한 솔식 더 느이  
긱특하다<전주 196>(전문, 어머니→아들)

ㄴ. 상장 안 찰방 덕 길도 하 아득하여 인편도 자조 왕뇌 못  
하여 문안 듯지 못하와 쥬야 답 ” 향염 간절하오는 차  
인편 오와눌 글월 밧즈와 일긱히 칩스온되 긱역지안하  
옵시고 소솔 평안히시기 바라줍더니 세월 녀류하와 잇  
씨를 당하오니 망극하온 심사의 신상 평안치 못하오시  
고 … 하략<광산 52>(신랑 안사돈→신부 안사돈)

ㄷ. 상략 … 슬전 사돈 양체후 허다 탐고심녀 신중 손침지  
환이나 아니계옵신잇가 권 ” 성덕 신사귀로 탐 ” 향  
염을 감당 못 하나이다 슬전 여러 남미분 안녕하시고

소턱 각덕과 겹 사돈 각덕 무침하시며 … 하략<의성  
1229>(신부측 사돈 → 신랑측 사돈)

ㄹ. 향염 간절하을 초 글월 밧즈와 든 ” 지솨 반갑솨고 겸  
하와 초동의 거누리오셔 긱운 평안하오신 일 든 ” 하오  
나 이 동안 날포되오니 연하와 긱운 평안하오신 문안 아  
옵고져 하오며 밧사돈겨오셔도 근녁 여상하오시고 …  
하략<창원 495>(신부 안사돈→신랑 안사돈)

‘향염’은 ‘마음을 기울임 또는 그 마음’을 의미한다. 언간에서는 ‘그립고  
섬섬한 마음’, ‘밤낮으로 답답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그리운 마음이 가득했을 때’, ‘향염’을 써서 그 애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황공 복지

(20) ㄱ. 황공 복지 문안하 살오며 심원쥬 문안 아옵고져 잇  
스오니 복#이오며 거# 심원쥬 겨옵 #####하 #한의게  
황###의 치사옵시기를 남정 ## 더 심원 가서 주소사  
하온즉 닷돈은 #심원쥬긱 바드라 하옵시기 분 바라와  
하옵나이다 초가 와서 쥬소 사하와도 교#시니 그덕의  
가셔는 긱 시##님 겨오셔 보니시오며 육#옵 이만 문안  
알외옵<광산 32>(전문, 미상)

ㄴ. 황공 복지하와 솔예 알외옵님이다 불리신 하인 말솨를  
듯스온니 상전 임진날 되옵고 긱휘 안영하옵신 긱별 듯  
스온니 깃스와 알외옵님이다 쇼인은 아직 무스 하황이  
다 공션을 상송한다 하엿스오대 쇼인 연상의 골물하여  
진내온니 계유 쥬변하와 … 하략<의성 902>(하인→상

전)

ㄷ. 고목 **황공 복지 문안하오며** 복미심 시 초설 디감님 그 체후 일향 만안하옵심 복모 부리옵지 못하오며 쇼인은 특별이 하홀지턱을 입스와 안식이고 보하오이 복힝 하 달이오며 취복비니 지히 회편 하 층양 종지속은 이송 복 슈하엿소오며 디감님 다시 등단하시와 속이 도영하옵 심 천만 복축 하오며 그체후 니 ” 안영하옵심 고과하압 니다 갑오 십일월 초스일 쇼인 밍순 고목<광산 33>(전문, 하위자→상위자)

ㄹ. **황공 복지** 나아리 그쳐후 만안 복 불승흔휘지 ” 라 쇼인은 하렘 님스와 계유 도히 잇소오니 덕분 아무라타 업스와 호오며 비즈 호옵신디 대부인 피점 나 계옵시다 호오니 하명의 놀납스와 알외오며 비각단확은 곱게 호녀습고 술창술 세홀 아니 보니녀 계옵시니 여셔나 나무나 잇습고 지휘 각가이 잇소오면 그 무어시 어넵스올잇가 안은 나무 업습고 지위 업스와 던과 갖치 못호오니 죄 만스와 호옵니다 힝츰호옵실 짜예 가져오옵심 바라옵 알외올 말슴 만호오나 황공 굿치옵 癸酉 五月 十七日 李就成 告目<광산 38>(전문, 하위자→상위자)

‘황공’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황공 복지’처럼 다른 구문과 어울려 쓰인다. (20ㄱ-ㄷ)의 언간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인이 상전에게 또는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보낼 때 사용되었다. 특히 (20ㄹ)은 언간 서두에는 ‘황공 복지’가 쓰였으며, 결구에는 ‘황공’만 쓰인 용례이다.

### 3.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인간의 관용적 투식을 보여주는 주요한 특성을 반복성, 생략성, 상투성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관용적 투식은 인간이 구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편지가 갖는 형식상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간에 나타나는 관용적 투식 중에서 반복성은 재점의 표기 양상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생략성은 인간이 구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예이며, 상투성은 인간이 사적 관계에서 일상의 안부나 소식을 전하는 보편적이면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양식이라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편지의 실용적 측면이 이들 관용적 투식을 더욱 확대시켜 나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본고에서 논의한 인간의 관용적 투식 외에도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을 방식을 이용하여 언간에 자주 드러나는 용례에 대하여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 A Study on Idiomatic Expression of Eongan

Joe, Yong-Lim(Mokwon University)

Baek, Nak-Cheon( Paicha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characters of idiomatic expressions in the Korean old Hangul Letters(henceforth Eongan). Eongan has not formal format in the text. However, it has a certain format. In addition, there are often expressed in one form to idiomatic expressions. It became customized and universalized as the use of expressions became widespread on format and idiom of Eongan.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Eongan's using can be confirmed in the form of an publishing "Eongandok".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paper, the development of typography, and the spread of Hangul, a variety of 'Eongandok' has been circulated and standardization and formalization have been done. For example, spoken expressions are revealed in Eongan, and many patterns of repetition, ellipsis, and conventional expression appear in the formality characteristics of Eongan. Idiomatic expressions of Eongan reflects the spoken language, it is interesting in that it reflects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Eongan.

First, the repetition expressions repeatedly in Eongan is more pronounced with a marked aspect of the double-point. Second, the ellipsis is evidence that Eongan has a colloquial characteristics. Third,

why the conventional expressions appearing in Eongan because it is a formal characteristics of letters reflects news of everyday and safety. In the future, Eongan research should be aimed at examining example frequency based on new big data, data mining, text mining.

**Key words:** Eongan(Korean Letters), Standardization, Idiomatic Expression, Repetition, Ellipsis, Conventional Expression

## [ 참고문헌 ]

## □ 단행본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창원황씨 언간>, <순흥안씨 언간>,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2, 태학사,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신창맹씨 언간>,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2, 태학사, 2005, 139-308면.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전주이씨 덕천군파 종택 한글 간찰』(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7, 태학사, 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광산김씨 가문 한글 간찰』(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9, 태학사, 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의성김씨 언간>, 『의성김씨 천전파·초계정씨 한글 간찰』(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0, 태학사, 2009, 55-380면.

## □ 논문

김남경. 「언간독과 증보언간독의 비교 연구」, 『민족문화논총』 24,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1, 29-56면.

김은성. 「규합한회를 통해 본 격식적 편지문화의 전통」, 『어문연구』 3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39-70면.

배영환. 「언간 규식서의 투식적 표현과 한글 편지에의 실현 양상」, 『한국언어문학』 103집, 한국언어문학회, 2017, 39-70면.

백낙천. 「조선 후기 한글 간찰의 형식과 내용」, 『한말연구』, 제18호, 2006, 161-195면.

이승희. 「조선시대 한글편지를 활용한 국어사 교육」,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219-246면.

이현주. 「언간에 나타난 중복형식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117-140면.

전병용. 「한글 간찰의 상투적 표현 고찰」, 『동양고전연구』 37, 동양고전학회,

2009, 279-306면.

홍은진. 「근대 언간 규범서 정보언간독에 대하여」, 『숙명어문논집』 2, 숙명여자대학교, 133-158면.

황문환. 「근대국어 문헌 자료의 ‘ㅎ’류 종결형에 대하여」, 『배달말』 25집, 배달말학회, 1999, 113-129면.

접수일 : 2019. 07. 24 총평일 : 2019. 08. 19 게재확정일 : 2019. 08. 21